

# 항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경상(김해숙) 김규찬(최효자) 김병율(이영숙) 김정연(이선분) 김정자 김종선(박영숙) 김준구(이소은) 김지한(유소정) 김형국(이오순) 박금엽 박부중(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박승현 송형기(김현숙) 윤병호(양영국) 윤영준(박진숙) 이상희 이윤옥 이창규(곽정순) 이한웅(김순옥) 이한철(박희영) 이향교 임형륜(박금옥) 장윤주(김현진) 정기성(심순옥) 채명엽(서시철) 천세력(염영분) 최기훈(정계숙) 최상걸(이미향) 최정규(김미영) 하세현 황영옥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경엽(손정아) 김규찬(최효자) 김순옥 김해숙(김경상) 박금엽 박성대 박희영 방현옥(신영신) 윤승한(민옥희) 이창규(곽정순) 이한웅 이한철 정기성(심순옥) 채명엽(서시철)

♣ **감사헌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이필레 김경엽(손정아) 김도성 김병율(이영숙) 김연이 김재인(이강우) 김정연(강준식) 김중익(박애순) 김춘화 남해순 박권제(송명숙) 박부중(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박종삼(이영원) 배숙자(김기탁) 백성원(안지영) 윤승한(민옥희) 윤정자(최성현) 이미자(김현성) 이상이(조경원) 이상희 이종문 이향교 임형륜(박금옥)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채명엽(서시철) 천세력(염영분) 하세현 황영옥 무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승현 박준홍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박현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상희 이소은 이승애 이아론 이옥남 정승현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명

♣ **월정헌금**

## 주간 성경연구

45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창세기 43장 25절 ~ 34절		
월요일	창세기 44장 1절 ~ 13절	목요일	창세기 45장 16절 ~ 28절
화요일	창세기 44장 14절 ~ 34절	금요일	창세기 46장 1절 ~ 7절
수요일	창세기 45장 1절 ~ 15절	토요일	창세기 46장 8절 ~ 27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옥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정태진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찬 양 대	지 위 자	할 렐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반 조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글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김정아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옥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맥 시 코 : 김홍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10. 30.

	신앙이 흔들릴 때	
옴기 10장 13-22절		설교: 이진우 목사

평소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큰 고난을 당하면 신앙에 회의를 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며 자신의 지난날을 곰곰이 돌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옴이 그러했습니다. 옴의 고백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1.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려 합니다.**

- 지금 옴의 발언은 참으로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을 “젊은 사자”와 “군대”에 비유하여,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자기를 공격하기만 하시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사실 옴의 이 말에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옴의 신앙관도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본 전제로 깔고, 한쪽은 죄가 있으니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당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바탕으로, 옴이 끝어낼 수 있는 결론은 결국 하나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옴은 자신의 신앙관을 바꿀 생각은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히려 곡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상에는 수많은 원인과 복잡한 맥락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사고할 수 없어 단순명료한 이유라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순종했던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대속의 제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왔음을 아셨기에 아무 죄가 없음에도 그 모든 일에 오직 묵묵히 순종하며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모릅니다. 뿐만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옴처럼 억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뜻을 깨달지 못하는 바로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기를, 이러한 영적 방황 끝에는 반드시 더 실질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고민이 없는 신앙은 때로 공허합니다. 옴도 이런 과정을 거쳐 큰 깨달음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옴이 이 모든 과정이 지난 후 깨닫게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는 것이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고난 가운데서라도 더욱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체하며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2. **완전히 낙담하게 됩니다.**

- 옴은 매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무덤으로 옮겨졌어도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나님에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하셨던 옴이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무뎌지고 망각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낙심, 슬픔, 우울, 아픔, 고통은 그의 뼈마디 마디에 깊숙이 새겨져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가 고통의 한가운데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시나마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쉽지 않음을 알고 그는 완전히 낙담한 듯 보입니다.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큰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도들은 옴의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조차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구하나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깊은 상처뿐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완전히 낙담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까 봐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만을 가장 간절히 바랄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우리의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가장 밝게 빛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완전히 낙담했을 때, 주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남득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다단한 인생과 분리된, 고차원의 영역이 아닙니다. 방황과 좌절의 과정이 없다면 신앙은 언제까지나 추상적, 관념적 차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방황하고 낙담하는 과정도 때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반쯤데기 같은 공허한 나 자신의 상태를 바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내 연약함 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속이 가득한 것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로 충만할 때까지 오둑이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결국에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8 - 45

2022. 11. 06.

##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 임 목 사	이	진	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회: 임 만 순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366(통485)장 다 같 이  
(Praise)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대 표 기 도 [1부]박종삼집사 [2부]윤영준장로 [3부]임만순장로  
(Prayer)

성 경 봉 독 욥기 11장 1~11절[구약p.771]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 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주님 내 맘속에[이호준]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453(통506)장 다 같 이  
(Praise)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최 성 현 장 로
목 도	시 온 찬 양 대
성 시	시편 103편 1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322(통357)장 다 같 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기 도	김 경 엽 집 사
성 경 봉 독	디모데후서 2장 20~26절[신약p.345] 사 회 자
찬 양	시 온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 이 진 우 목 사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323(통355)장 다 같 이 부름 받아 나신 이 몸
축 도	이 진 우 목 사

#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같 이
기 도	[다음주:배속자권사] 윤 속 권 사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9장 17-27절[신약p.1812] 인 도 자
설 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 우 목 사

#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치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 교회소식

## ◎ 광고

- [피택자교육]  
피택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은 교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오후 1시 40분 / 장소: 로템나무
- [2022년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소서!”(마16:18)라는 주제로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신의 순서를 확인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식당 봉사자]  
2023년 식당 봉사자를 자원 받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임직 및 원로장로 추대, 은퇴 감사 예배]  
임직 예배 및 원로장로 추대, 안수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가 11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임직자는 피택 장로 박종삼, 최상걸 집사, 피택 안수집사 최정규, 오동호 집사, 피택 권사 박진숙, 박지순, 장성자 집사, 피택 명예권사 채명엽, 현복자 집사, 원로장로 추대 윤조훈 장로님, 은퇴는 (1952년 이상 중직자) 안수집사 임형운, 이창규 집사님, 권사 곽정순, 박복순, 윤 속, 차옥자, 배숙자, 최귀남, 서재희, 이명희, 전순봉, 임영득, 심순옥, 유은자, 안금자, 유옥자, 이근자, 박순자, 김한나, 황영록, 안지영, 최정희 권사님이십니다.).
- [교역자 부임인사]  
정태진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교구, 행정, 청년부, 중고등부를 담당하십니다.
- [11월 행사 안내]

11월 17일(목)	14일(월)~18일(금)	에벤에셀 기도회
20일(주일)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일(주일)	추수감사주일, 2022년 하반기 성찬식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종료
21일(월)~25일(금)	임직 및 은퇴 준비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추수감사주일, 2022년 하반기 성찬식
26일(토)	임직식, 원로장로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	임직 및 은퇴 준비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피택자 교육(1시 40분/로템나무)	* 피택자 교육(1시 40분/로템나무) * 여전도회 월례회(3부예배 후/본당)

## ◎ 교우소식

- 장례: 故 백무순 권사(임영득 권사 모친) 10월 30일 소천, 11월 1일 장례
- 입원: 윤정자 집사(최성현 장로 소망2/고척4)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정영근 청년 정재훈 청년		장명원 장로 김옥자 권사	김병을 장로	사랑1 고척10 사랑2 개봉 1	루디아 여전도회
떡	천세력 장로 영영분 권사(총성/특별)					
다음주	김준구 성도		루디아 여전도회	최기훈 장로	루디아 여전도회	바울 남전도회

11월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06일)	임만순 장로	박종삼 집사	윤영준 장로	임만순 장로	최성현 장로	김경엽 집사	윤 속 권사
2주(13일)	담 임 목 사	유원호 집사	강영성 장로	박권제 장로	강영성 장로	유원호 집사	배숙자 권사
3주(20일)	최성현 장로	장윤주 집사	김병을 장로	최성현 장로	윤영준 장로	최상걸 집사	최귀남 권사
4주(27일)	윤영준 장로	홍정훈 집사	최기훈 장로	윤영준 장로	담 임 목 사	채만기 집사	이경자 권사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